

“  
 협회의  
 석유정책  
 방향제시 기능이  
 필요하다.”  
 ”

金 泰 由

(서울대 공대 자원공학과 교수)

석유협회보가 창간된지도 이제 10개 성상이 지났다. 지난 10년동안 이 협회보를 다듬어 펴낸 분들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각계의 독자들에게 준 도움을 생각하면 참으로 값진 노고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석유협회보의 각권들은 비단 협회회원사들에서 뿐만아니라 정부관련 부처, 언론, 학계, 연구소, 등지에서 두루 읽히고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게시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얽혀가는 오늘의 경제·사회 전반을 살펴볼때 정보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전문지로서 협회보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대량생산체제를 바탕으로 한 현대산업사회가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이 이루어져 왔다. 결국, 앨빈 토플러 등 일단의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정보사회」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사회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발전하는 컴퓨터기술,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통신네트워크 건설등 현재 비약적으로 진보하는 기술들을 두고 우리는 더이상 「컴퓨터사회」, 또는 「전자·기술사회」의 징후라고 하지않고 정보화사회를 위한 발전단계라고 말한다.

경제학에서도 경제이론 자체의 발전과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힘입어 고전학과 분석의 기본가정인 ‘완전정보’의 가설을 완화시켜 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이론(Game Theory)에서의 囚人の 고민모형(Prisoner's Dilemma Model)이다.

이 분석의 틀에서는 두명의 공범자가 더 이상 정보를 교환할 수 없으며 제3자만이 이들의 행동을 모두 파악할 뿐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자백을 택할지 알지 못한다. 좀더 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이 상황에서는 결국 죄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 균형점이 된다고 증명되었다. 이제 이러한 정보의 완전성유무에 크게 의존하는 게임적인 상황의

설정으로 기존의 분석들에서는 해결해낼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풀어어나가고 있다. 과점의 상황,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 수출~수입국의 정책선택등에서 어느 한쪽이 완전정보를 가지지 못한다는 가설이 이루어지면, 불완전정보를 가진 당사자는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거나 상대의 결정에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행동전략자체를 전면 수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기인한 것이다.

이제 석유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석유정보의 상황은 어떠한고 실무자와 국민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모잡지의 최근 경제칼럼을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석유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의 정보수집 및 예측능력을 꼬집은 기사가 있다. 거기에 의하면 '90년 1월 유가가 배럴당 31.4달러로 최고가일때 원유도입량도 37.61(백만배럴)로 최대에 이르러 지난 1월의 국제수지 적자를 월별기준 사상최대로 늘리는 데 공헌했다고 한다. 물론 단순히 유가와 도입물량만을 가지고 정보수집 및 예측능력의 정도를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량확보위주정책, 석유산업의 구조와 석유시장의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석유기금의 정산제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반박의 여지가 없지않다. 그러나 거의 무방비 상태로 맞이 하였던 1,2차 석유파동의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은 제쳐 놓고라도 3차의 호기에 저유가 정책으로 인하여 과소비를 유도하고 무역적자를 축진할 정책적 과오와 걸프전 이후의 일관성있는 에너지 정책의 부재등으로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석유계가 얼마나 비전문적이며 정보에 어둡고,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 附和雷同하는 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석유협회보」에 대하여 단순히 한개의 석유 전문잡지 이상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다. 잡지의 주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정보전달이라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협회보가 있기 이전에 '석유협회'가 있으며 협회의 기능이 일차적으로 회원사인

정유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석유와 관련된 모든 산업계와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균형된 국민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필자는 석유협회보가 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석유전문저널지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세가지를 제언하고싶다.

첫째로,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정보의 전문화를 통한 독자적이고 올바른 석유정책의 방향제시이다.

여기서 필자 나름대로 정보를 「일상생활의 지극히 평범한 사실들(facts)을 모아서 다듬어 놓은 덩어리」라고 다시 정의하고 싶다. 고도의 산업기술이나 국가 정책자료등에 관한 극비 사항만이 정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고급정보들도 필자가 정의한 그런 기저 사실들(base facts)에서 정제되어진 것에 불과하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석유 관련 사실들의 광범위한 수집없는 일차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의 추출이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정의중 「다듬는」 작업에서도 물론 전문지식이 요구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선된 석유관련 고급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석유 협회가 독자적이고 올바른 석유정책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석유시장은 경제이론상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가장 전형적인 예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경제통념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전문가와 연계하여 국민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업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 이미지를 회원사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필자가 협회보를 볼때는 협회보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지나치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정보란 신속함이 중요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지식인이상 항구적인 성격의 것도 있고, 면밀주도한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서 후자의 것들은 다시 되찾아 두었다

가 언제든 꺼내어 보고픈 것인데 협회보가 석유전문 정보의 산실로서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는 의견수렴의 확대이다. 석유관련 정보는 우리 사회의 전구성원에게, 그것도 의식주에 걸친 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석유관련 정책이나 결정은 일부 사람들에게 덕이 될때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이윤배반적인 성향이 경제이론상 외부성(External Diseconomy) 또는 에너지의 대체성(Substitutability)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따라서석유협회보가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관련부처, 소비자단체 등 사회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장이 됨은 물론, 이해 당사자 그룹간의 토론을 통하여 좀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수렴을 할 필요성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 석유협회보에 실렸던 한 소비자의 칼럼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당국이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꿀 것을 권고, 홍보하고 나서 교체후에 기름값을 올리더라는 다소 유모어섞인 비판의 글이었다.

이제는 석유문제를 관련분야 종사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배타적인 생각을 버려야한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석유정보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과소평가하도록 할 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협회보의 실질적인 주체는 석유협회나 회원사들이라기 보다는 정보를 두루 개진하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우리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되는 셈이다.

세째로 협회보의 정보전달 및 홍보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독자가 계속적으로 석유협회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어차피 협회보의 주된 독자층은 석유 및 에너지 자원관련인들이니 만큼 그들의 관심사이며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로서 앞으로 있을 행사 및 세미나에 관한 소식, 관련 인사들의 인사이동 및 최근 동향소개, 관련기관, 회사 및 단체들의 직원공개채용공고 등에 관한 자세하고 책임있는 고정란의 개설은 석유협회보 독자층의 저변확대는 물론 기존독자들에게도 협회보를 비치용, 장식품보다 실제로 들여다보고 정보를 얻는 실용품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오늘 탄생 10주년을 맞이하는 석유협회보에 거는 큰 기대가 지나온 기간에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 이상으로 무겁다. 새로 10년을 더하는 겸허한 자세로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 바란다.♣

□ 도서안내 □

# 석유의 이모저모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